

영광 대마전기차산단 4년만에 완공

내달 5일 준공식...165만㎡부지 1700억 투자·70% 분양

郡 역대 최대 프로젝트...기업유치 등 경제 활성화 기대

영광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가 착공 4년 만에 준공됐다. 영광군은 30일 “내달 5일 오후 2시 산단 내 야구장에서 (주)탑골로리 주관으로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조성사

업은 특수목적법인인 (주)탑골로리가 영광군 대마면 송죽·남산리 일원 165만2000㎡부지에 민간 투자 1677억원, 도·군비 45억원 등을 투자하는 군 역대 최대 프로젝트다. 지난 2009년 공사에 착수해 4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는 서해

안고속도로 영광 나들목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수도권에서 2시간30분 정도 소요되고, 영광~광주 간 4차선 개통으로 20~30분대면 공항, 항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최상의 물류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또 영광군이 이와는 별도로 전용도로, 기업용 수도, 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 입지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현재 분양률은 70%로, 일반기업 4곳이 입주해 있으며, 2개 업체는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연말과 내년 14개 업체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이다.

군은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의 준공으로, 지난달 22일에 준공식을 가진 송림그린테크단지과 인근의 군서농공단지가 하나로 연계돼 지역 산업 구조에 큰 변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라는 첨단 분야를 통해 미래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축을 마련하자는 것이 대마산단의 목적”이라며 “입주업체들에 대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전국 각지에 있는 전기자동차 관련 업체들을 유인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순천 기적의 도서관’ 개관 10주년

국내 최초의 어린이전용 공공도서관인 ‘순천 기적의 도서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설치한 우산 작품. 순천 기적의 도서관은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기적의 도서관과 버드내공원에서 다양한 전시 및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순천시 제공〉

김장채소 가격 안정 79억 긴급 지원

道, 배추·무 가격하락 예상 1만5000여t 수매

전남도가 김장채소의 가격 안정을 위해 79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올해 배추와 무 등 김장채소 재배면적이 16%이상 증가해 가격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도내 김치

가공업체에 농업종합자금 79억원을 긴급 지원해 김장채소 1만5000여t을 조기 매입토록 했다고 밝혔다.

자금은 긴급 지원을 신청한 해남 화원농협 김치공장, 나주 삼진G·F 등 21개 김치 생산업체에 연리 1%의

저리로 지원한다.

전남도는 긴급자금 지원을 통해 김치 가공업체들이 배추 1만4748t, 무 464t 등 총 1만5212t을 조기에 추가 구입토록 해 산지 거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치 가공업체들이 김장채소를 추가로 사들이는 물량은 지난해 도내

90개 김치 가공업체들이 매입한 배추·무 등 총 4만1000t의 37%에 해당 하는 규모로 앞으로 도내 김치 가공업체들이 본격적인 매입에 나설 경우 김장채소 가격이 안정될 전망이다.

임영주 전남도 농림식품국장은 “김치 가공업체들이 김장채소 가격 안정을 위해 가공·저장 물량 확대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며 “김장철 김장채소 가격 추이를 잘 살펴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동함평산단 금융 이자율 낮춘다

함평군의회, NH농협 차입 채무보증안 의결

함평군의회회는 최근 196회 임시회를 열고 동함평 일반산단 조성사업과 관련 이자율을 낮추는 민간투자 채무보증안에 대해 의결했다.

30일 군에 따르면 동함평산단 조성 과정에서 유입된 부국증권 자금 550억원의 2년 만기가 돌아와 이를 이자율이 낮은 NH농협의 자금으로 교체했다.

부국증권과 한 차례에 한해 채무보증연장이 가능하다고 협약을 맺었으나 6.2%대의 높은 이자금리로 인한 군의 재정부담감이 커 이 같이 결정 한 것이다.

NH농협에서는 연 4.27%의 고정금리로, 2년 만기 일시상환에 조기 분할상환이 가능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수수료는 2년간 0.4%, 이자는 매달 단위로 지급을 하는 조건이다.

군은 동함평 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가 차입하는 550억원에 대해 채무보증을 썼다.

상환기간은 2015년 11월13일, 상환 재원은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분양 수익금으로 하기로 했다.

이번 민간투자 채무보증안 의결로 추진 당시 논란이 됐던 지나치게 높은 금융수수료 및 이자 등의 문제점이 일부 해소돼 군의 부담이 줄게 됐다.

한편 학교면 마산리와 백호리 일대 73만5000㎡ 규모로 조성되는 동함평 일반산단은 내년 완공 예정으로 국비 84억원, 군비 77억원, 민자 550억원 등 711억원이 투입된다. 산단은 산업시설용지 49만2000㎡, 지원시설용지 1만3000㎡, 공공시설용지 23만㎡ 등으로 구성된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순천만 보전’ 시민들이 나섰다

시민회의, 조례 제정 서명운동 돌입

순천시민들이 순천만 보전을 위해 주민발의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순천만 지키기 시민회의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순천만 보전을 위한 주민발의의 조례제정을 위해 시민들이 이일부터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조례제정 이유로 방문객의 증가와 해안쓰레기 방치, 유입수계의 오염 등으로 갯벌 생산성이 70% 이상 줄고 종다양성도 감소하고 있으나 시는 생태관광의 원칙을 무시한 관광실적 쌓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갯벌 생산성 감소는 청정갯벌의 상징 켜봉어의 상업적 어획의 단절을 가져왔고 참꼬막은 12개 마을 중 9개 마을이 생산을 포기했으며 맛조개는 폐사 또는 오염으로 품질이 떨어져 수출길이 막혔다.

이 밖에도 논밭에 먹이를 구하는

흑두루미는 개체가 늘었지만, 갯벌에서 먹이를 직접 찾는 흑부리 오리류는 크게 감소하고 칠면조나 갈대 등 식물도 생장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조례의 골자는 연안지역 주민들이 순천만을 보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시민회의는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 제정 청구를 하려면 순천시 거주 유권자의 2%(5200여명)이상 서명을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며 “법정 기간 내 서명을 완료해 조례 제정이 성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만지키기 시민회의는 순천환경운동연합, 순천YMCA, 순천YWCA,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순천여성회, 민주총총순천시지부, 순천농협노조, 순천시농민회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됐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지역 농산물 소비자에 직거래 공급 ‘로컬푸드 직매장’

여수농협 ‘착한상점’ 내일 문연다

미평동에 25억원 들여 조성

지역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착한상점’이 여수에 문을 연다.

여수농협(조합장 배상현)은 30일 “지역 농가들이 생산하는 싱싱한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공급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오는 11월 1일 개장한다”고 밝혔다.

25억원을 들여 미평동에 지상 2층(연면적 1036㎡) 규모로 들어선 〈사진〉 로컬푸드 직매장 1층에는 직거래 매장, 소포장센터 및 농업인 교육시설이, 2층에는 하나로마트, 농협 등이 들어선다. 원스톱 쇼핑과 금융 업무를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 내 120여 곳의 농가가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고, 농산물을 포장·진열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직거래 방식으로 운영된다.

직매장에는 농가별 판매대를 지정해 과일류, 채소류, 잡곡류, 건조농산물, 축산물류, 화훼류, 친환경농산물, 수산물, 공산물 등을 판매



할 예정이다.

여수농협 측은 신선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일반야채는 당일, 과일류는 2~3일 등으로 유통기한을 정했다.

배상현 조합장은 “지역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로컬푸드 직매장을 준비해 왔다”며 “농민경제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매장을 활성화시켜 2·3호점으로 계속 확산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여수시 돌산을 두리에서는 ‘여수농협 돌산갯유통센터’가 준공식을 갖는다.

32억원이 투입돼 조성된 돌산갯유통센터는 지상 2층·지하 1층(연면적 1097㎡) 규모로 내부에는 여수농협 우두지점, 소포장실, 김치제조시설, 증숙시설, 건조시설, 저온창고, 집하장 등이 설치됐다.

/여수=김정화기자 chkim@



다음달 1일부터 단풍축제가 개최되는 장성군 백양사 전경.

장성 백양사 애기단풍 보러 오세요

1일 백양단풍축제

음악회 등 이벤트

장성군은 30일 “애기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내달 1일 국립공원 백양산과 백양사 일원에서 제17회 백양단풍축제를 개최, 관광객 및 주민들이 축제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모든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축제 행사장을 중심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고 파손되거나 더러워진 시설물 등을 정비해 쾌적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근 음식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교육도 실시했다.

축제 기간 동안 주요 진출입로에 주차요원을 배치해 교통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약수초등학교, 중학교부터 백양사 입구까지 20분 간격으로 버스로 운행한다.

‘백양산 애기단풍의 오색향연’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관광객들

에게 색다르고 차별화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선보이고, 자연친화적이면서 실리를 추구하는 경제적인 축제로 진행된다. ▲단풍의 하모니 ▲추억의 축제 기간 동안 주요 진출입로에 주차요원을 배치해 교통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약수초등학교, 중학교부터 백양사 입구까지 20분 간격으로 버스로 운행한다.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로 만든 음식을 선보이는 향토음식점, 지역특산품점도 운영할 예정이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화순 어머니들 ‘사랑의 하모니’

‘여미합창단’ 정기연주회

내달 2일 하니움 적벽홀

여미합창단이 내달 2일 오후 7시 화순 하니움문화소포츠센터 적벽홀에서 제5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여미합창단은 화순에서 거주하는 30~40대 가정주부로 구성됐으며, 지난 2008년 재창단한 뒤 전남도민합창경연대회, 광주전국여성합창경연대회, 광주KBC여성합창제 등에 참가해 장려상이나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화순군풍류문화큰잔치, 느타리마을축제,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을 위한 음악회, 5·18 민주항쟁 제32주년



지난해 광주KBC여성합창제에 참가해 공연하고 있는 여미합창단 모습.

기념식 등에 참석하며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해왔다.

조혜주 여미합창단장은 “노래교실로 시작한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정기연주회를 계속하면

서 단원들의 실력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며 “앞으로 소외된 이웃과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